

큰 빛, 권위를 가지신 분, 의사, 신랑, 생배 조각,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12/02 월

마 4:16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1:4-5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 12:36 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셔서 몸을 숨기셨다.

엡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고후 4:6-7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12/03 화

마 8:5-13 (8-10)

5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아와 간구하며

6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말하였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겠습니다.”라고 하시자,

8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1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칫상에 앉겠으나, **12**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대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왔다.

12/04 수

마 9:11-13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라고 하니,

12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잠 4:20-23

20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21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22 내 말들은 그것들을 찾아 얻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에 치료제가 된다.

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출 15:22-26

22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24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12/05 목

마 9: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마 25:1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빌 3:12-13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창 2:4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의 생성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2/06 금

마 9:16 또 그 누구도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대고 김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눅 5:36 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낚은 옷에 대고 김지 않습니다. 만약 기우면 새 옷이 찢길 뿐이고, 새 옷에서 찢어 낸 조각도 낚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눅 15: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시 45:13-14

13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14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계 19: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렘 2:32 처녀가 자기 장신구를,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수도 없이 여러 날 동안 나를 잊어버렸다.

12/07 토

마 9:17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삿 9:12-13

12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소. ‘그대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

13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행 9: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고전 1:10-13

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11 나의 형제님들,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12/08 주일

행 26: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눅 1:78-79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눅 6:36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애 3:22-23

22 여호와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잠 4: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마 13: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찬송: 78 (英) 은혜의 주 그는 예수 (中:61)

1 은혜의 주 그는 예수 그 이름은 "나는...이다"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이름.

4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양인 주 예수님 신부 취해 연합하는 신랑이실세.

7 주는 생명 주는 참 빛 어둠 제해 죽음 삼켜 우릴 살려 해방하네 밝게 하시네.

8 주는 부활 주는 능력 무덤 뚫고 음부 이겨 우릴 강건하게 하여 승리케 하네.

10 우릴 위해 목숨 버린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질병들을 고치신 의사.

11 제사장과 왕이신 주 하나님께 이끄시네 우리 또한 주 권위에 참여한다네.

12 주는 소망 또한 구속 우리 모습 변케 하네 주 복사해 주님 자신 표현케 하네.